

구글지도 月 이용자 1000만명 돌파 네이버·카카오, ‘일상 연결’로 방어

구글지도, 3개월 연속 1000만명대 지도·검색 생태계 동시 보유 ‘강점’ 국내 지도시장 변화 단정은 아직
네이버, 지도 서비스 소비로 연결
카카오, 검색 공유 등 일상 연계

구글지도가 국내 월간 이용자 1000만 명 시대를 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축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도 서비스가 단순 길 찾기를 넘어 검색과 광고, 예약, 결제까지 연결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구글지도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01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지난 7월 1013만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8월 1118만명, 9월 1019만명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000만명대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지도 이용자는 3054만명으로 선두를 지켰다. 티맵은 1520만명, 카카오맵은 134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가율은 네이버지도 9.3%, 카카오맵 7.0%, 티맵 3.6%로 구글지도가 주요 4개 앱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구글지도와 카카오맵의 이용자 격차도 지난해 9월 368만명에서 올해 9월 321만명으로 줄었다. 구글지도가 아직 국내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를 넘어서는 못했지만 추격 속도만큼은 빠르다는 평가다. ◆ **구글지도 1000만명 안착…검색·광고 시장까지 경쟁 확대**

구글지도의 성장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도 서비스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수익 기반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도는 이용자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등 지역 상권에 대한 검색 수요가 집중되는 서비스다. 지도 이용자 확보가 지역 검색과 광고, 커머스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와 검색 생



AI에 의해 생성된 구글지도와 국내 지도 서비스 플랫폼.

태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해외여행과 장소 검색에 익숙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서비스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특히 구글 검색과 지도 간 연결은 이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구글지도의 성장세를 국내 지도 시장의 주도권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이용자는 여름 휴가철인 8월보다 약 99만명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생활권에서의 이용 확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네이버·카카오, 생활 플랫폼으로 방어…고정밀 지도 변수**

이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은 축적한 지역 정보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지도의 강점은 국내 검색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다. 이용자는 네이버지도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검색하고 방문자 리뷰를 확인한 뒤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 축적한 지역 사업자 정보 역시 구글과 차별화되는 경쟁 요소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오프라인 소비를 연결하는 접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검색과 예약, 결제로 이어지는 서비스 구조는 이용자의 플랫폼 체류와 사업자 접점을 확대하는 기반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맵과 카카오톡, 카

카오모빌리티 등 기존 서비스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맵에서 검색한 장소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거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이용 경험이 강점이다.

티맵은 차량 내비게이션과 실시간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운전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장소 검색 중심의 지도 서비스와는 이용 목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향후 시장 경쟁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다.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관련 정책과 데이터 접근 여건의 변화가 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축적한 지역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관전 요소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도 경쟁을 가속할 전망이다. AI가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을 이해해 장소를 추천하고 이동부터 예약까지 연결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지도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구글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과 네이버·카카오의 생활 서비스 경쟁력이 맞붙는 가운데 지도 데이터와 AI 서비스 고도화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가를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아크릴, 의료 AX 사업모델 공동 발굴

의료 데이터 표준화 등 협력 체계 마련

KT가 의료 분야 인공지능전환(AX)에 박차를 가한다. 자사의 '의료 표준화 모델'을 통해 의료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면서다.

KT는 의료 AI 전문기업 아크릴과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의료 AX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의료 현장에는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진료 지원과 데이터 활용, 연구, 행정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의료 서비스와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KT는 의료 AI 전문기업 아크릴과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모델

을 공동 발굴한다. KT가 보유한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의 통합 구축 역량에 아크릴의 의료 특화 AI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 실증하는 경험 등을 결합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은 노형래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기업사업본부장 상무와 박외진 아크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선릉 아크릴 본사에서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조성 ▲의료 AI 기술·서비스 공동 발굴 및 실증 ▲의료 AI 연구 개발 및 사업화·확산 등이다.

양사는 의료기관별 공동 제안과 실증을 추진하고, 기술 검증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공공 연구과제와 신규 사업 기회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



노형래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기업사업본부장 상무(오른쪽)와 박외진 아크릴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침이다.

한편 KT는 자사의 의료 표준화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AX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5G 한계 넘어 우주망으로 통신사, AI 산업 생태계 건인

통신의 진화

⑥ AI 네트워크

통신사, 정부와 세계 첫 5G 개통
가상현실 대중화 실패… 체감 아쉬워
2030년 6G 목표… 통신영역 확장

실시간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5G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하고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았다. 2015년 유엔 산하 기구 ITU는 5G 기술 표준을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정의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이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IT 강국'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5G 상용화 총력전을 펼쳤다.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 지능형 CCTV, 재난 관리 등을 산업과 기관에 선제 도입하기 위해서다.

2019년 4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개통에 성공한다. 미국의 버라이즌은 약 1시간 후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기념비적인 사건에 김연아와 페이커 등 당시 상징적인 스포츠 스타가 5G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1호 가입자가 됐다.

그러나 콘텐츠 시청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속도 차이를 실감하지 못한 대중들은 실망했다. 통신사들은 4세대 이동통신과 차별화된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을 콘텐츠로 내세웠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이용 동기가 부족해 대중화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를 구현한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본래 5G 전용 주파수로

쓰이려던 28㎐ 대역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이음5G'을 통해 소수 산업에만 이를 공급 중이다. 현재 KT만 5G 전용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30.25Mbps로, 이는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속도다.

네트워크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 혁신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통신 기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할 기회가 열렸다. 바로 2030년 상용화가 목표인 6세대 이동통신이다.

6G의 목표는 'AI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영역의 확장으로 요약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지상과 우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AI와 통신을 결합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지상망과 비지상망을 연결해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한다.

또한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AI를 무선접속망(RAN)에 적용한다. 통신 자원을 AI로 조정해 혼잡을 줄이고, 트래픽 자동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지연 시간을 더 짧게 줄일 수도 있다. 6G 기지국의 옛지 AI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AI 연산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응답이 가능해 0.1ms 속도의 초저지연을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에 뒷받침하고 퍼지컬 AI를 연결할 전망이다. 다가올 6G 시대에 AI 산업 생태계를 이끌 통신사의 활약이 예상되는 이유다.

/조민선 기자 msjo@

LG헬로비전, 국감서 언급된 지역 현안 조명

헬로tv뉴스 '국감, 지역을 묻다' 운영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뉴스 프로그램 '헬로tv뉴스'에서 기획 코너 '국감, 지역을 묻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핵심적인 지역 현안을 집중 보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연안 생태계 위기부터 의료관광 격차, 교육 여건 개선 문제까지 주민 일상과 맞닿은 국감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로, 지역 주민의 삶

과 직결된 굵직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에 LG헬로비전은 국감장에서 오가는 다양한 지역 발전 논의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상생 교교'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 기획 '국감, 지역을 묻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부산 북항 인근 상어 '부강이' 출몰 사례를 조명하며, 바다 생태계 변화에 맞춘 연안 안전 대책과 어민 생존권 방안을 짚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톡 콘텐츠 이용 편의성 강화

카카오, 채널홈·소식 기능 개편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의 콘텐츠 노출 방식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홈'과 '소식' 기능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채널 운영 파트너는 업종과 운영 방식에 맞춰 채널을 구성하고, 이용자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새로운 채널홈 유형인 '콘텐츠형 채널홈'을 추가했다. 채널에 게시된 소식

과 숏폼 콘텐츠를 격자형 피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콘텐츠를 선택한 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며 해당 채널의 다른 소식과 숏폼을 연속해서 볼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도 강화했다. 쿠폰과 예약하기, 전화하기 등 채널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버튼으로 구성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